청년 해외진출 지원 외교활동 월별 동향

2019년
12월호

외 교 부
양자경제외교국

주요 내용

Ⅰ. 해외 동향

(아시아)
◇ 중 국 우리 유학생 대상 취업 설명회 개최
◇ 베트남 K-Move 스쿨 수강생 및 주재원 대상 베트남 노동법 강의
◇ 필리핀 취업정보 세미나 개최

(미주)
◇ 미 국 찾아가는 청년취업 세미나 개최
◇ 미 국 2019 미시간 취업박람회 개최
◇ 미 국 찾아가는 청년취업 세미나 개최
◇ 캐나다 취업 아카데미 행사 개최

(유럽)
◇ 핀란드 취업 멘토링 행사 개최
◇ 영 국 일자리 박람회 개최

(오세아니아)
◇ 호 주 '한국의 날' 행사기념, 해외취업지원 부스 운영
◇ 호 주 워킹홀리데이 청년 취업 현장 방문
◇ 호 주 서부호주 워킹홀리데이 취업·안전세미나 개최
◇ 호 주 공직 진출 설명회 및 잡 콘서트 개최

(아중동)
◇ 케 냐 국제기구 직원 초청 취업·진로 간담회 개최
◇ 이집트 한인청년 해외취업지원 행사 개최

Ⅱ. 국내 활동

◇ 서울 OECD 채용설명회 및 1:1 상담회 개최
◇ 2019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 개최

담당자 :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총괄과 임미연 사무관(02-2100-7668, mylim18@mofa.go.kr)

◇ <중국> 우리 유학생 대상 취업 설명회 개최

(출처: 주칭다오총영사관)

○ 주칭다오총영사관은 우리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11.23(토)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취업 준비 및 취업 전략,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의 정보를 전달

- 동 행사는 지난 9월에 개최하였던 취업설명회에서 우리 유학생들이 제안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획한 것으로, 제주항공 웨이하이지점장을 초청하여 특강 및 취업 컨설팅을 진행

주칭다오총영사관, 지난시 한국유학생 대상 취업설명회 개최

주칭다오총영사관, 지난시 한국유학생 대상 취업설명회 개최

11월23일 주칭다오 대한민국총영사관은 산동대학교 제13대 한인학생회(회장 김동민)의 협조하에 지난시에 재학중인 한국유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박진웅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유학생들의 중국 취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취업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 등 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금년 말까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유하거나 일정한 과정을 인수하면 <지방경제사회발전 필요인재>로 인정되어 취업비자 발급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박 총영사는 또한 한국청년들이 중국에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제도는 중국당국에 건의하고 필요한 지원은 섭득하여 충분한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는 조선대학 이건태 부총경리(중국 유학생 취업준비 및 한국 중소기업 취업전략), 유승범 제주항공 웨이하이지점장(항공사 취업전략), 파이낸셜뉴스 조정원 특파원(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준비 전략)이 한국유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 노하우와 성공스토리를 전달하였다.

특히 항공사에 관심이 많은 유학생들의 요청으로 유승범 지점장은 취업설명회 2부 순서로 개별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이번 취업설명회는 유학생들이 크게 만족한 행사로 평가되었다.

/ 본사기자

<관련 언론보도>

Ⅰ. 해외 동향
(아시아)

◇ <베트남> K-Move 스쿨 수강생 및 주재원 대상 베트남 노동법 강의

(출처: 주베트남대사관)

○ 주베트남대사관은 하노이에서 11월중 4차례 노동법에 대한 강의를 실시
- (11.15, 하노이 사범대) K-Move 스쿨 수강생 20여명 및 관계자 참석
- (11.18, 하노이 공공의과대) K-Move 스쿨 수강생 95명 참석
- (11.22, 하노이 사범대) K-Move 스쿨 수강생 20여명 및 관계자 참석
- (11.27, 베트남 기획투자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주재원 30여명 참석

○ 상기 강의에서는 ▲베트남 노동법 현황 및 법적 효력, ▲최저임금 현황, ▲초과근무 수당 산정,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 ▲노동법 개정 진행상황 및 개정안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진행

◇ <필리핀> 취업정보 세미나 개최

(출처: 주필리핀대사관)

○ 주필리핀대사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주필한인상공회의소와 함께, 11.23(토) 「제4차 취업정보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및 젊은 층의 관심을 얻고 있는 유튜버로 진출시 필요한 내용 및 호텔 분야 채용 정보를 제공

- 동 행사에서는 최다슬 유튜버가 참여하여, 컨텐츠 구상 방법과 촬영 도구 등 관련 상세 정보를 전달

※ 유튜버 최다슬 : 한국에서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2014년부터 필리핀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 현재 DASURI CHOI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

- 또한, 호텔 취업 분야에서는 Marriott 호텔 그룹 인사담당 매니저가 참석하여, 마케팅, 인사, 회계, 프런트 매니저 등의 인턴 기회를 설명

◇ <미국> 찾아가는 청년취업 세미나 개최

(출처: 주LA총영사관)

○ 주LA총영사관은 현지기업에서 J-1 및 F-1 비자를 통해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 및 인턴에 관심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11.1(금) 「찾아가는 청년 세미나」를 개최하여, 구직 희망자들의 주요 관심사(이민법, 취업 동향, 취업 노하우, 소득세 환급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취업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J-1비자 인턴·F-1 유학생 위한 취업세미나

"미국 내 취업 원하는 한인 학생 찾아갑니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한인 유학생과 청년들의 취업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LA 총영사관과 코트라 LA 무역관, 비자 스폰서 기관 'KOCES와 한인운영 구인구직 전문 웹사이트 '잡코리아USA' 등이 공동으로 '찾아가는 청년 취업 세미나'(이하 취업 세미나)를 개최해 취업난 타개에 나선다.

25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민관 협력으로 실시되는 이번 취업 세미나는 J-1비자로 미국 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있거나 F-1비자 유학생으로 인턴에 관심이 있는 한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비자 종류에 따라 별도로 갖는다.

먼저 J-1비자 인턴을 위한 1차 세미나는 11월1일(금) 오후 6시30분 LA 한인타운 중식당 '용궁'(966 Vermont Ave. LA)에서, 2차 세미나는 11월20일(수) 오후 6시30분 가디나 신라 회관(16944 S. Western Ave. Gardena)에서 각각 개최된다. 신청은 KCES(http://evite.me/UqjvYJzwXn 또는 event@kocesusa.com)에 하면 된다.

F-1비자 인턴을 위한 1차 취업 세미나는 11월25일(월) 오후 6시30분 캘폴리 포모나(3801 W. Temple Ave. Pomona)에서, 2차 취업 세미나는 11월26일(화) 오후 6시30분 UC 샌디에고에서 열린다. 세부 장소는 추후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F-1비자 인턴 취업 세미나의 참여 신청은 잡코리아USA(www.jobkoreausa.com/fl)로 하면 된다.

이번 취업 세미나에서는 주요 이민법, 미국 내 취업 동향, 취업 노하우와 인턴 경험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진다. 전문가 강의 및 취업자의 경험담으로 해외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취업지원기관과 구직 청년들과 네트워크 구축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J-1비자 인턴 또는 F-1비자 유학생은 누구나 무료 참석이 가능하며 초기 마감이 될 수 있어 사전 접수는 필수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 청년의 미국 취업지원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취업 세미나를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도 개최한다"며 "앞으로도 여러 사업을 통해 한국 청년의 세계시장 진출과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A 총영사관 · 코트라 잡코리아USA와 함께 남가주 네 차례 개최

<남상욱 기자>

<한국일보 10.28(월) B3>

<관련 언론보도>

<행사 사진>

◇ <미국> 2019 미시간 취업박람회 개최

(출처: 주시카고총영사관)

○ 주시카고총영사관은 11.15(금) 「2019 미시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우리 진출 기업의 우수한 인력에 대한 구인 수요에 대응하고 유학생들의 양질의 일자리 모색 과정을 지원

- 동 취업 박람회는 사전에 15개사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구인 수요를 파악하고, 구직 희망자들의 이력서를 접수받은 다음, 서류 심사를 통과한 구직자와의 1:1 채용 면접 형식으로 진행
- 또한, 이민법 전문가의 초청 강의를 진행하여, 유학생들의 주요 애로사항인 비자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

주요 내용	
비자 발급 관련	• 입국 전 : 미국 입국(국경 통과)을 위해서 필요한 비자는 미 국무부 주관으로,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발급 • 입국 후 : 미국의 이민국이 비자 목적에 맞는 체류 신분과 유효한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별도의 절차가 존재하므로, 사전 유의 필요
발생가능한 문제 상황	• 학생 비자를 통해 입국하고, 취업하는 경우 ☞ 추후 출국 및 재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신청할 경우, 과거 미국 내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할 가능성이 존재 • 무비자로 입국하고, 취업하는 경우 ☞ 무비자로 입국하고, 취업을 위한 다른 체류 자격을 얻는 것은 불가하므로, 사전에 체류 자격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

◇ <미국> 찾아가는 청년취업 세미나 개최

(출처: 주LA총영사관)

○ 주LA총영사관은 11.20(수) 해외취업지원협의체 회의에 이어 「찾아가는 청년 취업 세미나」를 개최하여, 비자 및 인턴 생활과 관련하여 현지 인턴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적극 해결

- J-1 인턴 종료 후, 미국 체류 연장을 위한 영주권 및 E-2 투자이민비자 등 신청자격 및 절차, 퇴직금 미지급, 휴가일수 과소 등 기업의 낮은 처우 등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현지 변호사 및 영사가 답변

LA 총영사관, 취업 세미나 개최

LA 총영사관과 코트리 LA 무역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찾아가는 청년 취업 세미나'가 20일 가디나 신라회관에서 김무호 옥타 LA 회장과 신호철 워싱턴 주미대사관 고용노동관을 비롯해 한인 인턴과 유학생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일 1차 세미나에 이은 이날 2차 세미나는 주요 이민법과 취업 동향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과 취업자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날 세미나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LA총영사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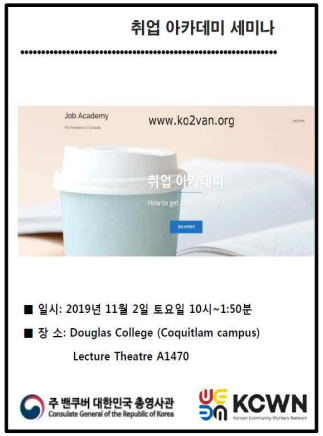
<한국일보 11.22(금) B5>

Ⅰ. 해외 동향
(미주)

◇ <캐나다> 취업 아카데미 행사 개최

(출처: 주밴쿠버총영사관)

○ 주밴쿠버총영사관은 한인 봉사단체인 KCWN (Korean Community Workers' Network)과 협력하여 구직 희망 한인 청년을 대상으로 11.2(토) 「취업 아카데미 행사」를 개최, 총영사관이 작년에 개설한 온라인 취업 아카데미 강좌와 연계한 ▲캐나다 취업 환경의 특성 및 인터뷰·이력서 작성 기업과 관련한 강의 및 ▲전문 상담자들이 참여하는 1:1 심층 면접 진행



Ⅰ. 해외 동향
(유럽)

◇ <핀란드> 취업 멘토링 행사 개최

(출처: 주핀란드대사관)

○ 주핀란드대사관은 11.1(금) 취업 멘토링 행사를 개최하여, ▲핀란드 회사의 외국인 채용과정, ▲취업 비자 및 취업 환경, ▲디자인·IT·경영 분야에서 취업한 멘토와의 대화 시간을 진행

- 동 행사에는 현재 핀란드 기업들이 자국민을 선호하던 추세에서 벗어나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거주 허가 등 이민 과정에 2-3개월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 등 외국인의 취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

- 또한, 핀란드에서의 취업은 공개 채용의 방식보다 MeetFrank, 페이스북, 링크드인(Linkedin) 등의 네트워킹을 통해 자주 이뤄진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취업 박람회 등 기업을 만날 수 있는 커리어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와 본인의 이력서를 직접 업데이트 하는 노력을 강조

<행사 사진>

◇ <영국> 일자리 박람회 개최

(출처: 주영국대사관)

○ 주영국대사관은 11.29(금)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청년과 유학생들 대상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영국 생활·안전 관련 부분 강연과 함께 취업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1:1 면접 기회를 제공

Ⅰ. 해외 동향
(오세아니아)

◇ <호주> '한국의 날' 행사기념, 해외취업지원 부스 운영

(출처: 주시드니총영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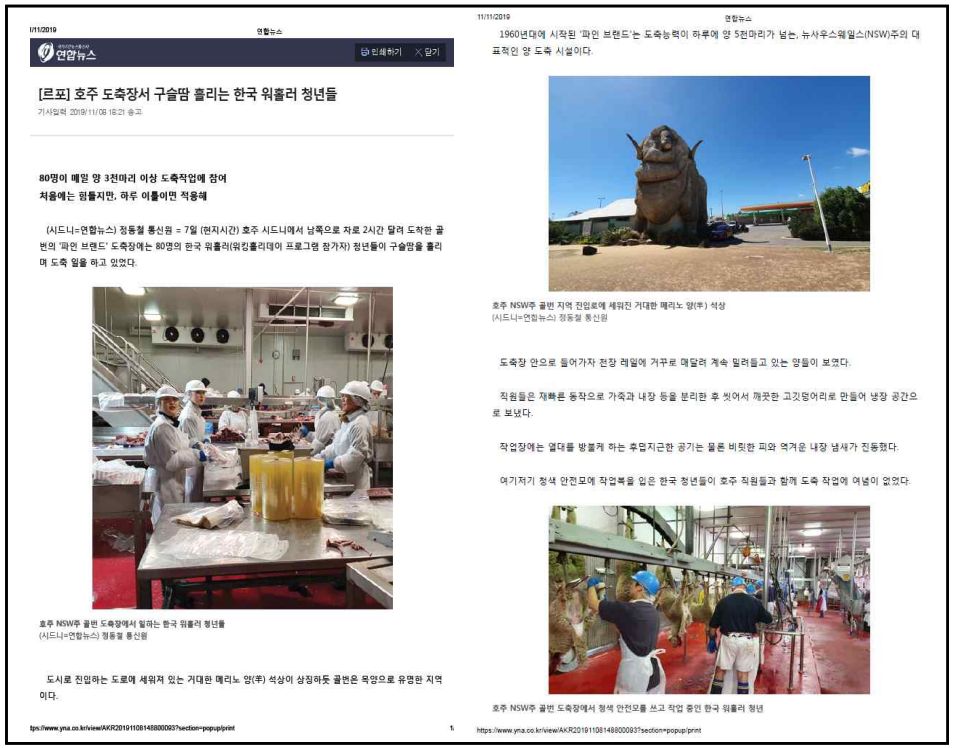
○ 주시드니총영사관은 11.2(토) 개최된 '한국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 워킹 홀리데이 청년 및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관련 부스를 운영, ▲총영사관 및 K-MOVE 센터 해외취업지원 활동을 소개하고, ▲기업 정보 제공 및 구직 희망자들의 지원서 접수 등을 지원

<행사 사진>

◇ <호주> 워킹홀리데이 청년 취업 현장 방문

(출처: 주시드니총영사관)

○ 주시드니총영사는 11.7(목) 우리 워킹홀리데이 청년들의 취업 현장 중에서 업무 강도가 높은 양 도축장을 방문하여 우리 청년들이 근무하는 환경을 점검하고, 작업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업체에 당부



1/11/2019 연합뉴스

연합뉴스

[르포] 호주 도축장서 구슬땀 흘리는 한국 워홀러 청년들

기사입력 2019/11/08 16:21 송고

80명이 매일 양 3천마리 이상 도축작업에 참여
처음에는 힘들지만, 하루 이틀이면 적응해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7일 (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차로 2시간 달려 도착한 골번의 '파인 브랜드' 도축장에는 80명의 한국 워홀러(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청년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도축 일을 하고 있었다.

호주 NSW주 골번 도축장에서 일하는 한국 워홀러 청년들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도시로 진입하는 도로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메리노 양(羊) 석상이 상징하듯 골번은 목양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8148800093?section=popup/print 1/

11/11/2019 연합뉴스

1960년대에 시작된 '파인 브랜드'는 도축능력이 하루에 양 5천마리가 넘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대표적인 양 도축 시설이다.

호주 NSW주 골번 지역 진입로에 세워진 거대한 메리노 양(羊) 석상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도축장 안으로 들어가자 천장 레일에 거꾸로 매달려 계속 밀려들고 있는 양들이 보였다.

작원들은 재빠른 동작으로 가죽과 내장 등을 분리한 후 씻어서 깨끗한 고깃덩어리로 만들어 냉장 공간으로 보냈다.

작업장에는 열대를 방불케 하는 후덥지근한 공기는 물론 비릿한 피와 역겨운 내장 냄새가 진동했다.

여기저기 청색 안전모에 작업복을 입은 한국 청년들이 호주 직원들과 함께 도축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호주 NSW주 골번 도축장에서 청색 안전모를 쓰고 작업 중인 한국 워홀러 청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8148800093?section=popup/print

<관련 언론 보도>

◇ <호주> 서부호주 워킹홀리데이 취업·안전세미나 개최

(출처: 주호주대사관)

○ 주호주대사관은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지역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11.20(수) 번버리(Bunbury)지역에서 「제2차 2019 서부호주 워킹홀리데이 취업 및 안전 세미나」를 개최

- 동 세미나에서는 지난 7월에 진행되었던 제1차 세미나의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이나 사건사고 처리 방법 등과 관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워홀러의 안전에 기여

-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워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

<행사 사진>

Ⅰ. 해외 동향
(오세아니아)

◇ <호주> 공직 진출 설명회 및 잡 콘서트 개최

(출처: 주시드니총영사관)

○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우리 청년들의 호주내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서 공직 진출 설명회(브리즈번, 11.16) 및 잡 콘서트(시드니, 11.23)를 개최

- 공직진출 설명회에는 퀸즐랜드州 무역 투자청,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의 한인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기관 정보, 업무 내용, 근무 환경, 취업 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

- 잡 콘서트에서는 경찰, 요리, IT, 회계, 사회복지 등 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취업 준비 및 직장 생활 경험담을 전달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

<행사 포스터>

Ⅰ. 해외 동향
(아중동)

◇ <케냐> 국제기구 직원 초청 취업·진로 간담회 개최

(출처: 주케냐대사관)

○ 주케냐대사관은 케냐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들을 초청하여, 우리 재외동포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취업 정보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11.2(토) 개최

- 동 행사에서는 UNICEF, AfDB, UN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이 자신의 지원 동기, 지원경로, 경력 관리 방식 등 경험을 진솔하게 발표하여, 구직을 희망하는 우리 재외동포 청년들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 제공

<행사 사진>

◇ <이집트> 한인청년 해외취업지원 행사 개최

(출처: 주이집트대사관)

○ 주이집트대사관은 이집트에 체류 혹은 거주하고 있는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11.27(수) 해외취업 지원 행사를 개최하여, 이집트에서의 취업 기회와 근무 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

- 동 행사에 참석한 삼성전자 이집트 생산법인 및 성안실업 등은 아랍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인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할 의사가 있음을 설명

- 참석한 청년들은 아중동 지역 진출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표시

Ⅱ. 국내 활동

◇ 서울 OECD 채용설명회 및 1:1 상담회 개최

○ 외교부는 OECD 사무국과 협업, 국민외교센터에서 11.22(금) OECD 채용 설명회와 1:1 상담회를 개최하여, 동 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구체적인 채용 정보를 전달

- 동 행사에서는 OECD 인사담당자가 OECD 조직과 업무 분야, 다양한 채용 경로 및 인적 구성 등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OECD내 한국인 비율이 1.45% 밖에 되지 않으며, 채용 절차에 지원하는 비율도 1.5%이므로, 보다 많은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장려

◇ 2019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 개최

○ 외교부는 중남미 지역 진출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KOICA, KOTRA, 삼성전자, 한국전력, 한국수출입은행 등 중남미에 진출한 주요 기관·기업과 협업하여 11.29(금) 한국외대에서 중남미진출 포럼을 개최

- 동 행사에서는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정책, 중남미 취업 진출 전략, 무역·상사, 가전·전자, 에너지, 건설·인프라 등의 분야별 진출 현황 및 전략의 전문가들이 발표하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

<행사 포스터>